

## 국내소식

### 빙축열 가스냉방기 설치 의무화 확정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 피크를 억제하고 발전 설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1일부터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건물에는 반드시 주간 최대 냉방부하 용량의 60% 이상을 빙축열 또는 가스식 냉방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지난 7월 30일 확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신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건물 중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 연구소, 숙박시설, 기숙사, 유스호스텔, 병원 1천 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탕, 특수 목욕탕, 실내 수영장, 1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 집중적 공기 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빙축열 또는 가스냉방기를 설치해야 한다.

동자부가 공포한 이 고시를 어기면 건축허가의 취소, 위반건축물의 철거·개축·중축·수선·사용제한 등 시정명령, 전기·수도·가스 등의 설치나 공급중지, 이행 강제금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된다.

### 한전, 빙축열설비 보급 간담회실시

빙축열설비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한 간담회가 최근 빙축열설비 공급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명환 한전 판매사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전은 4백만kW가 넘는 하절기 냉방부하를 십야로 분산시키기 위해 빙축열 냉방설비 보급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간담회가 「빙축열 시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을 당부했다.

한전은 대형 건물에 대한 빙축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지원금 상한액을 현재의 5천5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한편, 빙축열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세제와 금융지원 이외에도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빙축열 설비를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하는 법령을 7월30일에 고시했다.

### 220V 전용제품 '97년2월부터 생산 시행

공업진흥청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오는 97년2월부터는 220V 전용 제품만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공진청은 8월14일 발표한 전기용품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내년부터 현행 195개 110V/220V겸용 전기·전자제품의 형식 승인을 냉장고 등 전기사용량이 큰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97년1월까지 이들 겸용제품의 생산을 모두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기술자격 면허대여 강력단속

국가기술자격자들의 자격수첩 대여 및 2중 취업이 사회적 병폐로 자리잡음에 따라 정부는 이를 색출 강력히 처벌키로 하고 사전조치로 관련·단체를 통해 자율적인 자진신고 및 보완기간을 설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토록 기회를 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18일 건설·동자·체신부 등 건설관련부서와 협의 결정한 기술자격수첩 대여 관련자 조치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신고처를 마련 10월말까지 기술자격 대여 및 2중 취업자들이 자진신고토록하고 곧바로 보완하면 그동안 위법에 대해 의법조치를 면제하되, 2단계로 11월이후 시·도 등의 철저한 실태조사에서 자격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을 강력히 적용 자격정지하는 한편 해당자를 고용한 업체를 영업 정지키로 했다.

정부와 시·도에서 기술자격 대여실태를 집중적으로 벌일 주요대상은 건설·토목·전기·통신·소방분야 등 건설관련 업종의 국가기술자격자와 이들이 소속된 업체다.

## 전기계 원로 초청간담회 개최

한국전기신문사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관한 전기계 원로들의 초청 간담회가 지난 8월19일 서울 중구 중림동 만리성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신 전기신문사 사장을 비롯 신기조 전우클럽 회장, 김선창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윤희우 안전공사 이사장, 이종훈 한국전력기술 사장, 장기욱 한국전력보수 사장, 전기기사협회 이희옥 본부장 등 전기계 원로 및 업·단체장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기계 원로 및 업·단체장들은 전기계 위기의식을 공감하며 한국전기신문을 통해 전기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후배 전기인들에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의 글을 실어 전기계 발전의 선봉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짐했다.

## 현대중전기, 일본에 변압기 수출

현대중전기(대표:유재완)는 최근 일본 동경전력으로부터 6.5kV/6.9kV 20HVA 변압기 1대(5000만엔 상당)를 수주하여 9월경 계약을 정식 체결한다.

이번에 수주한 제품은 변전소에서 전압 6만V를 6천V로 떨어뜨리기 위한 변압기로 동경전력의 사양을 기준으로 제작, 내년 4월 이바라카현 신치촌의 서토포 변전소에 설치하게 된다.

동경전력은 전기설비 관련 자재는 일본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량을 미국업체에서 조달해 왔는데 이번에 현대중전기에서 발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아시아권 국가로 조달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5개 전기업체와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일본 업체를 누르고 현대중전기가 수주하게 된것은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동경전력으로부터 품질과 가격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현대중전기는 종합 중전기 업체로서 해외에 수년간 8천만달러의 초대형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등 각종 전기 기자재를 수출하고 있다.

세계 40여개국에 전기기자재를 수출해오고 있는

현대중전기는 이번 동경전력에 변압기를 직접 수출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일본의 개방방쇄로 수출이 막혀있던 일본 변압기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의 길이 열렸다.

## 해 외 소 식

### 일본, 장기 전원개발 계획 마련

최근 일본은 심각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전원개발 조정 심의회를 열고, 오는 2천1년까지의 장기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수립된 일본의 장기 전원개발에 따르면 오는 2천1년까지 7천5백95만kW의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총 설비용량은 2억5천3백만kW 수준까지 늘어 원활한 전력 수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오는 2천1년의 발전원 구성비는 화력이 1억5천5백만kW로,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6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자력 발전은 1천8백70만kW의 설비를 신규로 건설, 5천2백만kW를 확보해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2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같은 장기전원 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발전소 입지확보와 소요경비 충당에 주력하고 있다.

### 아시아 각국 전력수급 불안 대책마련 부심

최근 아시아 각국들은 경제가 크게 향상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전력부족난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간이 짧은 화력 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지아는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해 수력

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여러나라 가운데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정전시, 무역상사 주재원들이 팩스나 텔렉스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자가 발전시설을 갖춘 호텔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같은 전력수급 계획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자금확보와 입지난 그리고 전문기술자 등이 부족,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 미국 웨스팅 하우스사 휴대용 전력기 개발

미국 웨스팅 하우스사는 60A 주회로 차단기로 2백80V/1백20V를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 전력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의 특징은 SO전력케이블 끝에 연결된 핀-슬리브 플러그를 갖고 있으며, 주 차단기에 연결된 핀-슬리브 콘센트를 갖추고 있다.

또한 6개의 30A, 2백40V의 회전 콘센트가 있으며, 외부에 접속된 강철 조정기를 갖추고 있다.

### 일본 산요전기, 솔라 에어컨 개발시판

일본 산요전기사는 최근 전력용 태양전지와 일반 전원으로 병용운전이 가능한 최첨단 가정용 인버터 에어컨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에어컨은 야간이나 햇빛이 나지 않을 때 일반 전력으로 가동돼 주·야 구분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의 태양전지는 옥외에 설치하면 된다.

또 이 제품은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작업 또한 간단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셀렉트론즈사, 휴대용 전력공급기 선 보

미국셀렉트론즈사는 최근 모델 「LW-30」인 휴대용 전력 공급기를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의 장점은 25VDC 유효범위에서 불가능한 부패방지 코팅을 위해 정확한 두께 제어를 할 수 있다.

또한 30A에서 25VDC를 출력한다.

### G & W 일렉트릭사, 가스절연스위치 개발 시판

G & W 일렉트릭사는 정격27kV 6백A의 가스절연스위치(SF6)를 개발, 시판하고 있다.

이 제품의 플롭 스위치는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가능케 한다.

또 이 제품의 과부하차단능력은 3만A까지 가능하다.

### 바로잡습니다

‘전기기사’ 8월호 p27 : (5)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중 10년·5년인것의 전력량계의 검정 유효기간이 모두 7년으로 됨을 바로잡습니다.